

김동진 교수 민법 기본강의

법학교육의 전통의 강자! 한림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의 새로운 대세! 김동진 민법!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70%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강사!

○ 교재의 단순화 : 민법 기본서는 「민법공방」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민법 입문강의[무료특강]

- 강의일정 2019년 2월 25일(월) ~ 2월 26일(화), 오전, 월~화 강의, 총 2회
오전 9:20 ~ 13:00
- 교 재 입문자료(무료 제공)
- 문의사항 다음카페 「변리사 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의목표 민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영역인 「민법총칙」은 민법 전체의 공통분모와 같은 내용입니다. 나아가 「민법총칙」은 피고의 항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4개의 대표적인 권리(계약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입문강의에서는 이 4개의 대표적인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3월에 진행될 저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수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법 기본강의

■ 강의일정 2019년 3월 4일(월) ~ 4월 26일(금), 오전, 월~금 강의, 총 40회
오전 9:20 ~ 13:00

■ 교 재 민법공방 제2판(김동진 편저, 윌비스)

변리사 민법의 공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권의 기본서를 정리한 후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충실히 이해를 먼저 도모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역시 한 권의 문제집을 반복하여 풀면서 이해도를 올려가면서 암기할 것들만 따로 추려서 암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변리사 민법 수험가를 보면 기본강의에서 보는 책과 중급강의에서 보는 책이 항상 다릅니다. 기본강의 단계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 등을 긋고 정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독수를 올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또 다른 요약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출간한 교재가 「민법공방」입니다. 저는 2018년 변리사 시험이 끝난 직후 40문항 전부를 「민법공방」의 페이지로 해설을 하였고, 40문항 중 단 2개의 지문만이 공방에 없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판례로서 민법 교재에는 도저히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민법공방」 한 권이면 변리사 민법 시험에서 필요 이상의 점수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민법공방」으로 기본강의를 수강하시고 혼자서 정독하면서 회독수를 올리시다가 추후 가을 무렵에 진행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만 추가적으로 수강하시면 변리사 민법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험은 단순하면서도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3번 이상 보지 않을 교재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공방」이면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이 모두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다음카페 「변리사 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의특징 가. 조 문

민법 공부의 출발은 무조건 조문이어야 합니다. 단, 조문의 표면적 내용만 읽고 넘어가서는 조문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의 취지(존재이유)를 알고, 그 조문이 원·피고 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본강의 과정 중에 매우 확실하게 잡아드릴 계획입니다.

나. 판 례

판례는 크게 「단순 요지형 지문」으로 출제될 것과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심플하게 비교 정리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과정까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절대 민법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번 기본강의 과정에서는 「민법공방」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를 설명하고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사

례형 지문」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에 관하여 제가 판서를 하면 스스로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종강한 이후 다시 민법공방을 펼쳤을 때에도 괴리감 없이 노트를 참조하시면서 회독수를 편안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 기 타

- ① 초심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존의 민법 지식을 모두 리셋하시고 기본강의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기존에 잘못된 지식을 전제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설명과 잘못된 지식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혼란만 야기될 뿐입니다.
- ② 민법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민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본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본격적인 2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의 기초적 사항이나 흐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분히 들어주시면 나중에 2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③ 결석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초반부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후 수업을 듣는데 매우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석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인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보충해주셔야 합니다.

■ ■ 맺음말

바쁜 일정에 변리사강의는 많이 헤드리지 못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기본강의를 헤드리지 못한 관계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수강생들을 보면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본강의를 통해서 수험 민법은 이렇게 접근해야 하고, 민법은 마치 수학과 비슷한 과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기본강의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김동진 배상